



## 위축 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김 인 홍<sup>1)</sup>

1)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bstract =

###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in Children with Withdrawn Behaviors

Kim, In-Hong<sup>1)</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withdrawn behavior, social behavior, social problems, anxiousness/depression, internalizing problems, total behavior problems and self-esteem in children who are withdrawn. **Method:** A randomized controlled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31 children who were withdrawn attending J. P. Elementary School in Pohang City. Sixteen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15 to the control group. The program consisted of 20 sessions of 80 minutes per session, 2 days a week, for 10 weeks.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Children's Behavior Check List -Korean version (K-CBCL) and a self-esteem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isher exact test and Mann-Whitney U test. **Results:** The scores for withdrawn behavior, social problems, anxiousness/depress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ocial behavior and self-esteem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for the potential and beneficial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in children who are withdrawn. The program could be adequately used to improve problem behavior in withdrawn children.

Key words : Withdrawn children, Group art therapy

주요어 : 위축아동, 집단미술치료

교신저자 : 김인홍(E-mail: [ihk2624@dongguk.ac.kr](mailto:ihk2624@dongguk.ac.kr))

투고일: 2005년 7월 1일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In Hong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707, Sukjang Dong, Kyongju, Kyongbuk 780-714, Korea

Tel: +82-54-770-2624 Fax: +82-54-770-2616 E-mail: [ihk2624@dongguk.ac.kr](mailto:ihk2624@dongguk.ac.kr)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사회적 환경은 가정에서 또래 집단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간다. 따라서 아동은 많은 시간을 또래 집단내의 다른 아동과 놀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움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게 된다(Shaffer, 1998).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에서의 접근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행동특성을 가지며, 또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 집단의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배척되는 일이 많다. 연구자들은 소외된 아동이나 무시된 아동을 '사회적 고립아'라고 명명하면서, 이러한 아동 집단의 행동이 곧 위축 행동임을 주장하였다(Hymel & Rubin, 1985).

즉, 위축아동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교육적 자극과 학습의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사회화의 실패는 물론이고, 제반 발달영역에서 심각한 지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달상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일상생활 중 실패와 욕구좌절의 누적으로 늘 불행감을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발전시키고,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켜 차후에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기 초기에 위축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은 사회적인 아동보다 덜 성숙하고, 덜 독단적인 반면, 더 순응적이거나, 더 공손하다고 할 수 있으며(Rubin, Hymel, Lemare & Rowden, 1989), Rubin & Krasnor(1986)은 위축행동을 보인 아동은 자신에 대해 사회성,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는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축행동은 불안, 두려움, 긴장, 부끄러움, 과민, 열등감, 소심함, 수줍음, 슬픔, 무관심, 자신감의 부족, 부정적인 자아지각과 관련이 되며, 보통 말 수가 적고, 친구가 없고, 쉽게 감정이 상하는 특성과 관련이 된다(Quay, 1979).

김영숙과 이재연(1995)은 모든 아동 중 적어도 12% 이상이 정서적 문제나 그 외의 다른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P시 일개 초등학교 전체 아동 중 16%가 위축아동으로 조사되었다(포항시 정신보건센터, 2004).

그러나, 위축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교사나 부모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무시됨으로서 그 행동이 유지되고 더 증가되어 후기에 심각한 적응문제가 예견되고 학교에서의 타락, 범죄, 성인기의 정신병리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Rubin et al., 1989),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사회성 발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위축 아동에게 결핍된 사회성을 발달시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 유지케 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 이런 부적응 행동과 사회성 결여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기법의 하나로 미술치료가 대두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시각매체를 사용하여 내담자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 묻힌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무의식에 잠자는 자기치료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내면의 왜곡, 상실, 억제되었던 부분을 재발견하고 통합시킴으로써 인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6).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고립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집단 지향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또래집단과 관련하여 존재하며, 치료의 목표도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단미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집단의 대인관계에서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고, 미술작업을 한다는 창조 행위자체가 혼돈 속에서 분열됨을 통합하는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집단미술치료의 목적은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하게하여, 무의식에 잠겨있던 문제나 기억들을 의식화하여 창의적 경험을 통한 혼돈관계의 개인적 문제를 받아들이어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자아를 통제하고 자기통합을 도와서 균형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있는 사회적 통합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김화정,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위축아동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송인숙, 1999; 송인숙, 도복늬 및 김동연, 1999; 신인영, 2000; 최인형, 2002)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축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축행동 변화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위축아동을 위한 미술치료가 위축행동의 변화 뿐 아니라 위축과 관련된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대한 효과를 본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축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위축 행동과 위축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및 행동적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위축아동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하나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이 위축아동들의 위축행동과 위축과 관련된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제 1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위축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2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사회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 제 3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사회적 미성숙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4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우울/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5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내재화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6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총 문제행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7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용어의 정의

### • 위축아동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서 임상현상에서는 내면화 장애의 범주에 속하며, 신경증적인 행동 특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드는 아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부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Younger & Daniels, 1992), 이러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아동을 위축 아동이라 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 Child Behavior Checklist-Korean version) 결과 위축척도 점수가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결과 63점 이상에 속하는 아동을 위축아동이라 칭하였다.

###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집단활동에 미술을 도입하여, 그림을 매체로 이용하는 심리치료를 말하며(Naumberg, 1966), 본 연구에서는 김화정(2002), 신인영(2000), 송인숙 등(1999), 한국미술치료학회(1996), 하영미(1997)의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내용을 위축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성 향상과 자존감을 증진시킴으로서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주간 20회로 구성한 것이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위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것이 위축아동의 위축,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유사 실험 연구로써,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P시에 소재하고 있는 J, P 초등학교의 1학년 아동 중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한 아동
-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에서 하위척도인 위축척도 점수가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결과 63점 이상에 속하는 아동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된 아동 중 실험군은 두개 초등학교에서 각 10명을 할당하였으며, 대조군은 J초등학교에 10명, P초등학교에 9명을 할당하였다. 이중 실험군에서 중도에 그만둔 아동 2명, 총 20회 중 결석이 5회 이상이어서 제외시킨 아동 2명으로, 총 4명이 탈락하였다. 대조군은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끝난 후 부모가 사후 검사에 응하지 않은 대상 4명이 탈락되어, 최종적으로 실험군 16명, 대조군 15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은 프로그램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연구도구

#### • 중재도구: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구성된 위축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선행연구(김화정, 2002; 신인영, 2000; 송인숙 등 1999; 한국미술치료학회, 1996; 하영미, 1997)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전 과정을 초기, 탐색, 실행과 종결인 4단계로 구성하여 친밀감 형성과 흥미유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 욕구표출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그 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향상과 대인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총 20회로 구성되어있으며, 회당 80분, 주 2회, 10주간 본 연구자와 미술치료 프로그

<표 1>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목적
초기	1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참여동기 증가
탐색	2	나무 그림그리기	자기이해, 타인이해 심리전달
	3	자아상 그리기	상호이해 및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4	동물가족화	가족지각 및 가족관계과악
실행	5	내 마음 열어봐요	분노의 표출화, 감정전달 기능 향상
	6	무엇이 보여요(난화)	그림에 대한 부담저항감 감소, 내적체험 객관적 표현
	7	나의 장단점(손 본뜨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증가로 자존감 증진
	8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풀라주)	자신개방과 감정표출로 자존감 증진
	9	만화이여 그리기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증진
	10	공동화	성취감, 친밀감, 협동성 증진 및 사회적응력 향상
	11	데칼코마니	집단응집력, 친밀감, 표현력 증진
	12	셀로판의 구성	집단원의 연합친밀도 증가
	13	그림대화	타인존중 및 감정과 조망능력향상
	14	친구모습나타내기	우정, 친밀감, 자신감 증진
	15	나는 작은 씨앗이에요	자기 지각 및 탐색
	16	곡류 모자이크(공동화)	협동심, 사회성, 자기와 타인 존중감 향상
	17	손으로 나타내기(공동화)	유대감, 표현력, 성취감 증진
	종결	18	미래의 나는?
19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말	타인존중, 사회성 향상, 현실적응력과 타인 조망능력 향상
20		작품 전시회 및 평가회 사후검사	과거경험 정리, 변화된 자신의 모습지속 및 발표능력 향상

램과정을 마친 사회복지사 2인과 보조치료사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술치료사 2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에 의해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용이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 연구측정도구

-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아동기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Ahenbach & Edelbrock(1983)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및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구성되어있고, '전혀없다(0점)', '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1점)', '자주 있거나 심한편이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며, 원점수를 표준화된 T 점수로 환산하여 사회능력척도는 33T이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63T점 이상이면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2에서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하위척도인 위축행동과 위축과 관련된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2에서 .88이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축척도 : 사회적인 위축, 철수, 소극적 태도 등을 평가하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사회성 척도 : 사회적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사회적 미성숙 척도 : 발달상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미성

숙하고 비사교적인 측면들을 평가하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우울/불안 척도 :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평가하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내재화문제 척도 : 위축척도, 신체증상 척도와 우울/불안 척도를 합한 총 31개 문항이다.
- 총 문제행동척도 : 전체 문제 행동(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성문제, 정서불안정, 내재화, 외현화 문제)을 합한 것으로 117 문항의 합이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가치로움의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를 조원성(199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2문항으로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원성(199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5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 학교들로부터 사전승인을 구한 후, 두개 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로 평가를 실시한 후, 연구대상 기준에 맞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31)

특성	구분	실험군 (n=16) 실수 (%)	대조군 (n=15) 실수 (%)	x <sup>2</sup>	p
성별	남	5(31.3)	6(40.0)	.259	.716
	여	11(68.7)	9(60.0)		
부의 학력	대졸이상	9(56.3)	10(66.7)	.354	.716
	고졸이하	7(43.7)	5(33.3)		
모의 학력	대졸이상	6(37.5)	7(46.7)	.267	.722
	고졸이하	10(62.5)	8(53.3)		
모의 직업유무	유	4(25.0)	4(26.7)	.011	.916
	무	12(75.0)	11(73.3)		
경제상태	이백만원 이상	13(81.3)	11(73.3)	.278	.685
	이백만원 미만	3(18.7)	4(26.7)		
형제수	1명	4(25.0)	5(33.3)	.261	.704
	2명이상	12(75.0)	10(66.7)		

사전검사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사후조사는 10주 프로그램 실시 후 두군 모두에게 사전 조사와 같이 실시하였다.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제공되었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아동정신건강을 위한 소책자가 제공되었다.

**자료분석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비모수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간 인구학적 특성, 주요 변수의 사전 측정치에 대한 동질성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위축,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사후 차이는 Fisher exact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아가 더 많았으며, 부의 학력은 대졸이상, 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더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이백만원 이상, 형제수는 2명이상이 더 많았다.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사전 동질성에 대한 분석결과,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두 그룹 간 주요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간 주요 종속변수의 사전 검사치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표 3>, 프로그램 제공 전 두 그룹의 주요 종속변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대조군의 중재 전 동질성 검증

변수	평균(표준편차)		u	P
	실험군(n=16)	대조군(n=15)		
위축	71.19(2.14)	71.40(2.20)	113.50	.794
사회성	48.38(1.75)	48.80(1.61)	103.50	.495
사회적 미성숙	56.00(1.86)	56.00(1.85)	118.20	.936
우울/불안	54.50(1.93)	54.73(1.71)	112.50	.763
내재화	54.63(1.45)	54.73(1.28)	108.00	.625
총문제 행동	56.13(1.78)	56.20(1.61)	119.00	.968
자아존중감	77.31(1.49)	77.27(1.62)	117.50	.920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가설 검증<표 4>**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주 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위축,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비교하였다.

- 제 1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위축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U=16.00, P=.000)하여,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 제 2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사회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증가(U=68.00, P=.040)하여,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 제 3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사회적 미성숙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U=12.50, P=.000)하여,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
- 제 4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우울/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U=3.50, P=.000)하여, 제 4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4>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변수	집단	사건		U	P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위축	실험군(n=16)	71.19±2.14	66.69±1.96	16.00	.000
	대조군(n=15)	71.40±2.20	71.40±2.26		
사회성	실험군(n=16)	48.38±1.75	49.94±1.00	68.00	.040
	대조군(n=15)	48.80±1.61	48.87±1.68		
사회적 미성숙	실험군(n=16)	56.00±1.86	51.31±1.89	12.50	.000
	대조군(n=15)	56.00±1.85	55.80±2.04		
우울/불안	실험군(n=16)	54.50±1.93	50.00±1.32	3.50	.000
	대조군(n=15)	54.73±1.28	54.80±1.86		
내재화	실험군(n=16)	54.63±1.45	50.44±1.55	12.50	.000
	대조군(n=15)	54.73±1.28	54.40±1.72		
총 문제행동	실험군(n=16)	56.13±1.78	49.94±1.91	2.50	.000
	대조군(n=15)	56.20±1.61	56.53±1.81		
자아존중감	실험군(n=16)	77.31±1.49	80.81±1.28	7.00	.000
	대조군(n=15)	77.27±1.62	77.00±1.46		

- 제 5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내재화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U=12.50, P=.000)하여, 제 5 가설은 지지되었다.
- 제 6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총 문제행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U=2.50, P=.000)하여, 제 6 가설은 지지되었다.
- 제 7 가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증가(U=7.00, P=.000)하여, 제 7 가설은 지지되었다.

## 논 의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서 임상현장에서는 내면화장애(internalizing disorders)의 범주에 속하고, 이는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드는 아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부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Younger & Daniels, 1992), 부적응아는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Gottman, 1997). 즉,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불안, 사회적 복종, 사회적 실패를 더 경험하며 또래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기 위해 성인에게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et al.,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축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위축행동 및 위축과 관련된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것으로서, 위축아동에게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위축행동 뿐 아니라 위축과 관련된 행동적, 정서적, 사회성 및 심리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본 연구에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 아동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위축점수가 유의하게 낮아(p=.000),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성인들에게보다는 또래 집단에 의하여 수용되기를 더 갈망하는 경향성을 보이니(신혜영, 1994), 위축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고립되게 되는데,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집단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적 경험과 집단 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대인관계기술이 향상되었고, 또한 미술은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키고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양식이 빨리 인식되어 집단진행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어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으로 위축행동의 향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효과가 있었다는 송인숙 등(1999)의 연구결과, 위축 아동에 있어 집단미술치료가 위축행동을 감소시켰다는 신인영(2000)의 연구결과, 심하게 위축된 시설아동에 있어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위축행동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최인혁, 2002)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사회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40), 사회적 미성숙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0), 집단 미술 치료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사회성 및 사회적 미성숙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에게 고립된 아동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교육적 자극과 학습의 기회를 상실하여 사회화의 실패는 물론이고 제반 발달영역에서 지체를 초래한다. 집단 미술치료는 미술재료를 공동으로 쓴다든지, 공

동작업을 한다든지, 또 상대방의 그림을 보완해 주면서 관계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집단원 끼리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의사소통기술을 배움으로써 사회성 발달과 사회적 성숙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인숙(1999), 신기은(1999), 이미애(2001)의 연구결과 대인관계 항목에서 자주성, 준법성과 협동성이 향상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화정(2002)은 집단 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 불안 위축 증후군(Quay, 1979)과 폭 넓게 관련되는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위축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전·후 우울/불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 ). 이는 늘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Wadesen(1980)이 지적한 바대로 아동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과 침묵 등으로 대화를 통한 치료가 장애가 되는데,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기표현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위축아동들이 내면의 감정 및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고 내재된 긴장이나 불안을 방어 없이 완화시켜 위축아동의 우울/불안에 집단 미술 치료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가 아동의 우울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최선남(1995)의 연구, 최외선 이영석 및 전미향(1996)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최인혁(2002)이 심하게 위축하거나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시설아동에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불안 위축 행동에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내면화 장애 속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인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에서 하위척도인 위축척도, 신체증상 그리고 우울/불안척도를 합한 내재화 문제 척도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내재화 문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 ). 또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성문제, 정서불안정, 내재화 그리고 외현화 문제를 합한 총 문제행동에서도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전·후 총 문제행동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 ). 그러므로 위축아동에게 적용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 행동, 사회 및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Rubin과 Krasnor(1986)은 위축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일반

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실패와 욕구좌절이 누적되어 불행감을 느끼며 또한 정서적 문제로 적절한 문제해결력을 방해받고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전략을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집단 미술 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인지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전·후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p=.000$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 미술치료의 주체가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고 성취감을 맛보게 되며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집단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개개인의 집단 성원은 서로의 그림을 보완해 주거나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성이나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최외선 등(1996)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김동연과 이성희(1997)가 우울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전미향(1997)과 김선관(2001)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축아동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근거로 지역사회에서 학교 정신보건사업에 적용하여 위축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그들의 부적응적 행동을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시켜 그들이 속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가진 의미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축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위축행동과 위축과 관련된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두 초등학교 학생 중 위축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전 과정을 초기, 탐색, 실행과 종결인 4단계로 구성하여 친밀감 형성과 흥미유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 욕구표출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그 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향상과 대인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총 20회로 구성되어있으며,

주 2회 10주간 실시하였다. 위축행동과 위축과 관련된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 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은 A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로,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를 조원성(199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룹간 사전 동질성과 사후 차이는 Fisher exact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험군과 대조군간 일반적특성 및 사전주요변수(위축, 사회성, 사회적 미성숙, 우울/ 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어 두 그룹은 사전에 동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위축행동, 사회적 미성숙, 우울/ 불안, 내재화, 총 문제행동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10주간의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됨으로써 위축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 정신 보건 사업의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추후 연구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한 재 반복 연구,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연구 및 시간 경과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등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김동연, 이성희 (1997). 결손가정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4(1), 1-24.

김선관 (2001). *가출소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 이재연 (1995). *아동을 위한 상담이론과 방법-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의 생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김화정 (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송인숙 (1999).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인숙, 도복늬, 김동연 (1999).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

축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6(2), 141-164.

신기은 (1999). *협동작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인영 (2000). *초등학교 위축 아동의 집단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영 (1994). *위축행동에 대한 아동의 개념 및 정서추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이미애 (2001).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원성 (1996).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미향 (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선남 (1995). *아동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동적 가족화에 의한 우울 판별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외선, 이영석, 전미향 (1996). *아동의 부적응 행동개선에 미치는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83-100.

최인혁 (2002). *시설위축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 *미술치료연구* 9(1), 351-358.

포항시 정신보건센터 (2004). *2004 포항시 지역 정신보건사업 실행보고서*.

하영미 (1997). *초등학교 미술과 협동제작활동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5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국 미술치료학회 (1996).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Achenbach, T. M.,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Coopersmith (1967). *Studies in Self-Esteem. J Scientific American*, 218(2), 96-10.

Gottman, J. M. (1997). *Toward a definition of social isolation in Children. Child dev* 48, 513-517.

Hymel, S., & Rubin, K. H. (1985).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problems: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T: JAI press.

Naumburg, M. (1966). *Dynamically Oriented Art Therapy: Its*



-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Grune & Stratton.
- Quay, H. C. (1979). *Classification*. In H.C.Quay & J.S.Werry(Eds), New York: Wiley.
- Rubin, K. H., & Krasnor, L. R. (1986). *Social cognitive and social behavioral perspectives on problem-solving*. In M. perlmuter(Ed), NJ: Lawrence Erlbaum.
- Rubin, K. H., Hymel, S., Lemare, L. J., & Rowden, L. (1989). Child experiencing social difficulties: Sociometric neglect reconsidere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94-111.
- Shaffer, D. R. (199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adson, H. (1980). *The dynamics of ant psychotherapy*. N.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Younger, A. J., & Daniels T. M. (1992). Children reason's for nominating their peers as withdrawn: Passive withdrawl versus acrive isolation. *Dev psychol*, 28, 955-960.
-